

주안에 News InChrist



주.안.에.교.회.뉴.스.레.터.



01
Jan. 2020
Vol.8 No.01

- 주안에 네이버
- 주안에 만남
- 목장 사역국 모임
- 청년부 / 교육부 소식

주안에교회 InChrist Community Church ph. 818.363.5887 | 문서국 e-mail: icccnews123@gmail.com | web: icccla.org



EM Forever Together Wor-
ship & 흠커밍 Retreat
| 최호기 기자 | <관계기사 8-9면>

새해...
우리의 신을
벗습니다
주말씀 따라
걸게 하소서

2020년 신년특별새벽예배
(밸리채플)와 특별저녁예
배(MP채플)가 12월 30일
부터 1월 4일까지 일주일
간 은혜 가운데 진행되었
다. 사진은 밸리 새벽 예배
후, 학생들이 모여서 그룹
기도를 드리는 모습이다.
| 양영 기자 |

■ '주안에 네이버' 홀리스 · 긍휼 사역

어려운 이웃들의 필요와 영적성장에 관심을

한해를 마무리 하는 아쉬움과, 다가올 또 다른 해에 대한 설렘이 교차하는 시간인 12월 22일(주일) 오후 3시 30분, MP채플 카페에서는 주안에교회가 오랜시간 기도로 준비해 온 새로운 사역인, “주안에 네이버”가 첫 발을 내딛는 모임을 가졌다.

“주안에 네이버” 사역은, 말 그대로 주변의 어렵고 힘든 이웃들에게 물질적인 필요를 나눔과 아울러서 복음을 통한 영적성장도 함께 나누고 싶어서, 사랑과 열정으로 준비하고 있는 사역이다.

첫 미팅임에도 불구하고 양쪽 채플에서 관심있는 성도님들 40여명이 모여서 서로의 경험과, 의견을 나누며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 모임을 주관하신 담임 목사님께서서는 우선은 삶의 의욕이 없는 홀리스 들을 대상으로 그들에게 필요 하면서도 유익한 것들을 공급하고 조금이나마 편리를 제공하



는데 목적을 두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홀리스가 아니지만 아주 열심히 일을 해도 생계를 이어가기가 힘든 분들의 가정을 대상으로, 필요를 공급함과 동시에 그들이 자존감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인 성장도 함께 돕고 싶은 비전을 설명하였다.

또한 2,3 주 후에 이어질 2차 모임에서는 우리의 이야기가 아닌 그 사역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조사해서 나누어보기로 권면을 하시며, 서두르지 않고 꼼꼼히 준비하여서, 실수하지 않는 사역을 계획하고 있음을 거듭 강조하였다. | 오희경 기자 |

■ 주안에 집밥

지난 12월 1일 밸리채플에서는 주안에 집밥이라는 섬김, 사랑과 소통의 만남이 있었다. “따뜻한 집밥이 그리운 사람은 다 모여라.”는 목적에 걸맞은 맛있는 어머니의 음식 같은 최고급의 한식이 제공되었다.

46명의 초대 손님 중에는 많은 타민족들이 눈에 띄었으며 32명의 도우미들이 정성껏 섬겨 주셨다. 세시간 프로그램은 일곱가지의 순서로 잘 짜여져 있었으며 찬양과 교제, 게임 등 특히 Student Mentor Connection 시간이 마련되어, 그룹별로 소중한 질의문답 시간을 갖기도 하였다.

집으로 돌아갈 때에는, 지난날 어머니께서 학교로 돌아가는 자녀들에게 음식을 싸서



보내주듯이 작은 밑반찬도 골고루 보내 주는 정성까지 보내 주어 감동의 시간이 되었다고 입을 모은다. 이번 주안에 집밥의

모든 프로젝트는 양태섭 집사님과 봉사자들이 마음을 모아 헌신했다. | 임용자 기자 |

■ 성탄전야 캐롤송

12월 24일 저녁 성가대원과 찬양팀, 사역자로 구성된 캐롤송 멤버들은 밸리채플을 섬기고 계시는 장로님들을 방문해서 캐롤송을 부르는 행사를 가졌다. 3개 팀으로 나뉘어 저녁시간에 잔잔한 화음으로 부르는 찬양 가운데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으며, 따뜻한 차와 다과를 준비해 주신 장로님댁에서 몸을 녹이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도 했다. | 류명수 기자 |



■ 목장·사역국 송년 모임

“당신이 내 곁에 함께 있어 행복했습니다”



■ MP채플13목장

13목장은 송태일 김지선 목사부부의 정성 가득한 섬김을 통해 성장해 나가고 있는 목장입니다. 매년 연말 모임을 통해 찬양과 말씀 나누고 어른들도 아이들도 마음껏 기쁨을 나누며 맛있는 음식과 선물을 주고 받으며 감사의 마음을 나눴습니다. 2020년에는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귀한 목장이 되길 기도합니다!!!!



■ 벨리채플 9목장

벨리 9목장은 두번에 걸쳐 12월 모임을 가졌습니다. 첫번째 모임은 송년을 겸하여 최종선,최옥희 목사집에서 가졌고 두번째 모임은 동지를 맞아 이윤아 성도님이 팔죽을 손수 만들어 대접하는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윤아 성도님은 작년 8월부터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한 새내기이나 늘 목원들을 섬기기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섬기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을 믿습니다.

■ 임마누엘 성가대

12월 14일 성가대 국장님 이신 장기연 장로님, 장혜덕 권사님 댁에서 성가대 연말모임이 있었다. 국장님 내외분과 성가대원 모두는 준비한 음식을 나누고, 율놀이 게임을 즐기면서 선물을 준비해 주신 임원진과 국장님 가정의 섬김으로 풍성하게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다. 2020년에는 배진호 국장님과 함께 예배를 돕는 성가대로 더욱 성장하기를 기대한다.



■ 한글학교

2019년 한해동안 한글교육에 힘써주신 선생님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그동안 수고하신 장은경 국장이 2020년에 국장으로 일할 임종구 집사에게 바톤을 넘겼다. 내년 2020년에는 교회성장을 위해 더욱더 힘내기를 다짐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 벨리채플 재정국

벨리재정국(국장 조용대 장로, 팀장 정진복 안수집사, 팀원 윤명열 안수집사, 전영옥 집사, 공수옥 권사) 가족들이 지난 12월 22일 저녁 한해를 보내며 서로 격려하고 마음을 나누는 자리를 가졌다. 늘 골방에서 같은 일을 반복하지만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재정국이다.

■ 아기 기도

“예쁜 딸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카일, 이태영 집사
(밸리채플 6목장)

딸 Ashley(이예슬 양)의 출생을 축하합니다. 셋째 늦둥이로 딸을 얻으신 집사님 가정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가득 넘치기를 바랍니다.



최다니엘 전도사,
최인희 사모

딸 최예나의 출생을 축하합니다. 하나님께서 첫번째 사랑의 결실로 허락하신 첫째딸 예나가 믿음 안에서 예쁘게 성장하길 기도 드립니다.



■ 밸리 유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회

밸리 유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단장 구자형·지휘자 Henry Shin) 11회 겨울 시즌 연주회가 12월 14일 밸리채플에서 열렸다. 60여명의 오케스트라 단원들의 멋진 연주로 300여명의 관중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초겨울에 듣는 연주는 참으로 예뻐하고 아름다웠다. 마지막 곡으로 "The Polar Express" 곡이 연주되었는데 잔잔함과 씩씩함이 어우러져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시켜 주는 것 같았다.

| 임용자 기자 |

■ 간증/ 박용진 집사

아름다운 신앙공동체 축복의 만남

저희 가족은 이번 연구년을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고 한국으로 곧 귀국하게 됩니다. 올해 연구년을 맞아 방문한 저희 가족에게 ‘주안예교회’ 성도님들께서 베풀어주신 사랑은 온 지면을 수놓아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신앙의 연륜이 더 할수록 주안에서 믿음의 지체들을 만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예배 가운데 주님을 깊이 만나고, 성도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소외당하는 이들을 품고 섬기는 건강한 교회를 만나는 것은 참으로 큰 복이고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주안예교회’와의 만남은 저희에게 더 없는 축복이었으며 감사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한해를 돌아볼 때 감사의 제목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그동안 자주 뵈지 못해 그리움이 컸던 형님(시아주버님) 가정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온 가족이 말씀 훈

련을 통해 영적 회복이 이루어지고, 소중한 만남을 통해 귀한 동역자를 만나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최혁 목사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주께로 더욱 가까이 이끄시고, 삶의 예배자로서의 본분을 잃지 않도록 지속적인 훈련과 가르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데 밑거름이 되어주셨습니다. 언제나 가족처럼 돌아봐주시고 섬겨주신 이미란 전도사님과 소리 한 조각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새가족국의 김진석 장로님과 사역자님들의 아름다운 섬김과 따스한 미소는 저희 부부가 닮고 싶은 그리스도의 섬김으로 다가왔습니다.

ICY 오제니퍼 전도사님과 사역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갈수록 주일 학교와 청년부가 사라지는 한국교회의 암울한 현실과 달리 아이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사역자님들의 헌신적인 섬김은 이 땅에 다음 세대를 책임질 부흥의 세대가 이곳에서 준비되고 있음을 저희 아이의 신



앙 성장을 통해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섬기시는 한글학교 교사 선생님 여러분들의 수고는 작은 밑알이라고 믿습니다.

끝으로, (이름을 부르기도 전에 벌써 설레는) 가족 같은 9목장(사진) 식구들! 최종선, 최옥희 목사님 내외분과 목원 한 분 한 분의 사랑은 오래도록 그리움으로 남을 겁니다.

박용진, 강연남, 박서인, 박민호 올림

■ 밸리채플 주안에만남



‘신앙의 성숙, 행복한 믿음생활’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크리스마스 시즌에 올해 마지막 주안에 만남이 있었다.

하나님이 보내지 않으면 올 수 없는 교회로 16명의 새가족들과의 만남을 지난 19일 밸리 채플에서 가졌다. 새가족국에서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저녁식사 후 자기소개 시간은 서로에 대한 소통의 장으로 친밀감이 깊어지는 귀한 자리였다.

최혁 담임목사님의 자기소개, 주안에교회를 개척하게 된 동기, 하나님에 주인이 되는 교회가 되는 것이 소원이 되었던 목회 철학 등을 자세히 소개함으로 주안에교회 가족이 된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다.

새가족 한 분 한 분은 곧 돌아올 새해부터 새로운 기대를 안고 등록한 주안에교회에

서 행복하고 영적으로 깊은 신앙생활을 하기를 소원 한다고 하였다.

■ 새가족 소감

서남석 집사 저는 불교 신자였고 미신적으로 사는 삶을 평생 살아 왔습니다. 81년도에 미국에 온 후 친구따라 교회에 다녔지만 아직도 시간과 물질이 아까운 신앙의 단계에 있어서 아깝지 않게 드릴 수 있는 신앙의 수준으로 올라가는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이 현재의 소원입니다.

이규환 장로 북가주 몬트레이에 거주 할때부터 최혁 목사님의 CD를 좋아하며 듣게 되었는데, 1년 반 전 딸이 살고 있는 이 동네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지난 1년 반 동안에 말씀을 들으며 신앙생활한 것이 일생 25

년 동안에 신앙생활 보다 더 많이 배우고 값진 시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지금은 너무 행복합니다.

이각균 성도 과거 교회와 목사님으로부터 상처를 받아 이곳저곳 다니다 사십 년 동안은 교회에 다니지 않았습니다. 재미있고 유익한 주안에 라이프를 다니다 등록하게 되었는데 주일예배에 나온 이후 한 번도 안 빠지고 다니고 있으며 저의 신앙 성장을 위하여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최영미 성도 주안에교회 성도인 고은경 집사의 옆집에 살고 있으며 전업주부로 살다보니 부끄러움을 많이 타지만, 목사님의 말씀이 귀에 쏙쏙 잘 들어와 그 말씀을 따라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윤동준/윤선옥 집사



서남석 집사/서명숙 권사



송근철 집사



이규환 장로



이여숙 집사



이각균 집사



이승호 성도



김옥화 성도



고은경 집사



최영미 성도



이신옥 집사



왕승관/왕옥주 집사

■ IC Kidz & Joy 평가회

"부족한 부분 함께 채우며"

12월 28일 오전 10시 30분, MP 교육부 JOY&KIDZ 2019년 '평가회'를 겸한 '단합대회'로 모이는 날, 교회 밴으로 애나하임(Anaheim)까지 가는 내내 소풍가는 아이처럼 마음이 들떠 교통체증도 없었는데 지루하게 느껴졌다.

오늘의 특별한 모임을 위해 기꺼이 장소를 제공해 주신 곳은 조경일&이지혜 집사의 보금자리, 지혜 집사의 평소 모습처럼 소녀감성에 아기자기 하고, 깔끔했다. 정성껏 준비해주신 샌드위치와 달콤한 과일과 파이, 직접 갈아서 내려주신 커피를 브런치로 먹으며 이성우 전도사가 미리 나누어준 평가지(예배, 설교, 헌금, 찬양, 기도, 교사회의(시간,구성)를 작성한 뒤에 'Evaluation(평가회)'을 시작했다.

보완의견들이 쏟아져 나왔고, 더 정성스런 예배를 올려드려야 함을 알기에 뜨거웠다. 내년에는 부모님들과 함께 중보하며, 가정에서 교회로 아이들의 '영적성장'을 위해 부족한 부분을 채워 나가기로 했다.

모든 순서가 끝난 뒤, 미리 정해 두었던 '마니또(숨은천사)'에게 \$20 상당의 선물 교환을 한뒤, 새해 기도제목도 나누어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

이 바쁜연말에도 각자의 시간을 내려놓고, 내가 아닌 KIDS의 성장과 계획, 단합을 위해 함께한 한분, 한분이 너무 귀하게 느껴지는 하루였다. | 이성은 기자 |



■ 영커플 사역을 시작하며...

'건강한 가정, 건강한 관계'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땅에서 경험케 하는 장소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랑을 느끼며 체험하면서 나의 내면, 나의 영혼을 따뜻하게 건강하게 세워갈 첫 공동체입니다.

영커플목장과 함께 사역을 시작하게 된 개인적인 동기는 홀로에서 함께라는 새 인생의 장을 시작하는 시점이 정말 귀하게 느껴졌고 삶의 모든 현장을 등산하듯 넘어야 한다는 무게감도 있어서 저 역시 동일한 무게감을 가지고 다른 측면의 새로운 결단과 함께 영커플 가정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특히 아이들 사역을 오랫동안 하면서 아이들이 아닌 부모님과 가정의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든 사역의 결론

이 가정으로 향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가정에 대한 가치를 피부로 느끼며 온 시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준점을 흐리지 않고 개인과, 가정, 자녀가 세상을 향해 모든 삶의 부분에서 견고하게 세워져야 하는 시기임을 생각하며, 영커플사역 통해 건강한 관계형성, 서로 공감대 있는 교육을 통해 필요를 서로 공급해줄 것입니다.

교회공동체 안에서 신앙성장을 경험하는 예배자로 서고, 서로에게는 동역자로서, 자녀에게는 본이 되는 믿음의 부모로, 지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건강한 믿음의 가정으로 성장되는 것을 목표삼고 있습니다.

| 이니콜 전도사 |



■ 한글학교 내달 2일 개학

자녀들의 한글교육을 위해서 만들어진 주안에 한글학교는 이니콜 전도사님이 교장으로 코리타운에서 가까운 한국문화원에서 최신 교과서를 구입하여 주안에 한글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다.

올해 2020년 봄학기가 2월 2일에 개강 하는데, 경험과 실력을 고루 갖춘 교사진이 성실히 모든 준비를 하여, 학생들의 등록을 1월 5일부터 받는다.

학생들의 봄방학 등록은 장정보 권사님과 이미란 전도사님이 함께 수고하시기로 되었다. 이번 봄학기는 2월 2일에 시작하여 6월 17에 끝나는데, 수업시간은 정오 12시부터 1시 15분 까지이며, 매달 마지막 주일에는 수업이 없다. 6월 세번째 주일에 봄학기 종강식을 갖는다.

■ ICY 학부모 모임

12월 15일(주일) 오후 3시가 좀 넘은 시각, MP 카페테리아에 들어서자 15명 정도의 부모들이 모였다.

먼저 김민재 전도사가 12월에 있을 중요 스케줄에 대해 설명했다. 새로운 계획으로는 학부모기도회를 매월 첫째주 금요일에 하기로 했으며, 주일예배 후 Small Group으로 나누어 주일설교를 자세하게 다시 리뷰하고, 금요일예배 때도 교재를 사용하여 Bible Study를 좀더 깊이있게 하기로 했다.

이어 최목사는 우리 아이들이 언젠가 대학 공부를 위해 잠시 떠나 있을지라도 힘들고 고난 받을때 언제든지 교회로 돌아와 힐링 받고, 후배들을 돌아보고 케어하는 곳이 '모교회'임을 일깨워 주어야 한다고 했다.

■ 코람데오 소식



■ 따뜻하고 행복한 연말 뱅킷

코람데오 청년 예배 후, 2019년 연말 뱅킷이 MP채플 카페에서 코람데오 청년들이 함께 하였다. 새로운 청년들, 그리고 벨리 청년부와 MP 청년부가 오랜만에 다 함께 모여 많은 게임과, 맛있는 음식, 그리고 선물 교환의 시간을 가지며 다들 행복한 시간을 가졌다. 각자 코람데오 청년들이 2019년에 감사했던 것들, 그리고 2020년에 소망하는 것들에 대해서 나누며 따뜻한 시간을 가졌다.

| 양하민 기자 |



■ 주제가 있는 예배

2019년의 마지막 주일, 12월 29일에 코람데오의 세번째 청년예배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올렸었다. 2019년 한 해 동안 각자의 삶의 위치에서 잘 이겨내고 그 자리를 지켜준 청년들에게 예수님께서 고맙다고 하시는 뜻에서, “고맙다”라는 주제로 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를 올렸었다. 부족한 청년들이지만,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와 찬양과 기도로 올려드리며 주님의 큰 사랑을 느끼는 예배였다.

■ 성탄주일예배



12월 22일 벨리채플 IC Kidz PSG학부모님들이 크리스마스 데코와 크리스마스 식사 봉사로 섬겨 주셔서 더욱 풍성한 크리스마스가 되었다. 김주디 회장님 및 함께 해주신 모든 학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 류명수 기자 |



12월 22일 MP채플 성탄주일예배 특별순서에 참가했던 JOY&KIDZ 아이들과 스태프들. 아이들이 입은 옷의 장식에는 한 땀, 한땀 할머니들과 어머니들의 수고와 정성이 가득 담겨있다.

| 이성은 기자 |

■ Homecoming Retreat



'Forever Together Worship'

2019 ICY Home Church Retreat was a success! This retreat was held December 20-21 (Fri-Sat) starting with Forever Together Worship. Even though this retreat was shorter than our typical retreats, I believe the message we wanted to share with our ICY students was delivered.

We wanted the students to find the value of a Home Church even though they go off to college and invited the college students to come and share their testimony and thoughts about the value of a Home Church and how having a Home Church helped them with their faith when they were away.

To plant that awareness of loving the church that we go to, we cleaned Valley Chapel together. Students took out the trash and mopped the floors of the bathrooms, 2nd floor rooms, and the Fellowship Hall to serve the church they go to, we focused our sermon as being called to a specific church and the importance of having a Home Church, and we also had a long bonding time through games, activities, and sports.

Throughout the whole process of this retreat, God really worked and helped in many ways for us to plant that awareness and love for the Home Church. We wanted the students to know that we are here for them and this community and friendship they form in this church will continue even after they go off to college.

InChrist Community Church is already a Home Church to many of us and we pray that God will use this church to comfort and to bring many together. | Jennifer Oh |

It felt truly inspirational and blessed by God to see people of all ages interacting and worshipping the Lord together.

I can say with unwavering confidence that fervent prayer, which began no less than six months ago, carried this event to the finish. The praise leaders and pastors, as well as deacons and elders, who truly have a heart for the EM sacrificed so much to make this happen, and for that, I think I speak for all of us when I say thank you.

I felt God residing joyfully in His House

*'truly inspirational
and blessed'*



that night. He was amongst us, smiling down at His Children bringing Him genuine worship. To see even just one lost sheep come back to the shepherd is, let's be honest, all that we are striving for as servants of the Most High, and my goodness, was it life-altering to see it happen.

Paul Choi too had a spiritually uplifting time that night, and here's what he experienced: "God never ceases to amaze me with His incredible work through His church and His people. Despite falling short of His glory each and every day and also being one of the worst of sinners, God never fails to show me that His grace

is new every morning and that my sins are, indeed, washed away and that the blood of Jesus runs profusely through my veins. I had the incredible honor of opening the EM worship night. I had nothing planned. I only said one thing: "Lord, take over." I'm naturally an introvert so being in a large crowd makes me feel very uncomfortable. But that night, the Lord's power was upon me and I felt His warmth and strength wrap around me and it was then I knew that I was in God's groove.

College is a spiritual battleground where Satan takes advantage of wandering hearts, piercing the young adults with many pangs of pleasure, yet seeing so many of our young EMers make that choice of coming out and stepping into the light of Christ made my heart shout for joy. Victory was the Lord's. Victory is the Lord's. Amen. The Holy Spirit's great power was upon each and every one who was there to worship that night. I am convinced that God has not forgotten the English Ministry. No, I am absolutely convinced that God opened the floodgates of heaven and that a revival is coming! Through our young generation the Lord's name will be made greater! And the older generation as well as my generation will continue to nurture, pray with, and pray for young generation here in the English Ministry and see them bear the fruit of Spirit." | Paul Yang |

■ Homecoming Retreat 소감

*'to find the value of Home Church'*

Caleb Yun The Homecoming Retreat has been a genuine surprise for me. I had many misgivings and doubts in mind about this retreat, in regards to the fact we were doing it at church and its length. In hindsight I found the retreat was personally very impactful, especially considering where I was spiritually before. After graduating from high school and entering college life, I found myself especially accustomed to this new lifestyle. It made me feel part of a new community, but also caused me to drift away from this church I've called home for so long. When I came back from my first quarter I felt like an alien, someone who didn't belong here anymore as a church member. This retreat

reminded me however that this church was here to stay and endure as my home church, no matter where God leads me. I found great comfort and spiritual renewal through this retreat, I'm sincerely blessed and thankful for God reminding me once again of his love and grace.

Elim Choi In my first year of college, there were many times when I felt lonely because I did not have a Christian community at my school. However, it was really encouraging to know that when I come home to visit, I will always have a Christian community here at my home church. I realized that friendships made here are a special blessing because we all believe in the truth of the gospel and that unity keeps us together no matter how many weeks or months I'm away for. It's not the kind of companionship that you feel between normal people, but the kind of comfort, love, and support you feel from fellow Christians is even deeper and very healing, and I think I truly have that here at my home church.

Joshua Kim Personally, I was very excited for the Homecoming Retreat. Not only because it was going to be my first time serving as a leader but also because of the fact that it was taking place at our home church, ICCC. As a member of the church ever since way before ICCC was formed, the Homecoming Retreat really reminded me of how faithful God has been to this church and how much he truly cares about it. The

way he nurtured the community and the way he was able to grow it has been and still is a true blessing to see right before my eyes. The Homecoming Retreat really opened my eyes to the goals and visions God has for not only the ICY community but for the whole ICCC community as a church, one church. After serving and seeing how the younger generation is praising God, I can confidently say that I'm even more fired up to see more of God's blessing throughout the years to come. May God continue to use me in growing this church and I pray that this church will be able to be a "home" for many more lost souls to come.

Kaylee Kim Going to college was my chance for a fresh start. New school, new home, new people, I was ready for something different. Immediately entering college, I decided that I was going to find a new church that I could call "home" while I was in school. But being in this new environment was not as easygoing as I thought it'd be. I met a lot of friends who weren't Christian and the weekends started becoming a busy time for me. Being surrounded by this college lifestyle really tested my faith. I did visit churches here and there but I never found a "home" church. Then came the retreat. Throughout the semester I kept pushing away my faith and made excuses for not settling to a church. I thought that I could do it on my own and that I'd eventually find a place to call home. But this retreat reminded me that this church, ICCC, is my home, it always has been.



■ 벨리채플 6목장 소개

'We are an eclectic bunch' 다양성 속에서 하나됨

-Comprised of 38 members, our ages range from early 20s to 60+ (Youngest is only 2 months old!)

-We have students, working adults, business owners, full time parents, empty nesters, and grandparents.

-We span generations and languages, some more comfortable in English than Korean and some who are fluent in Spanish and Japanese.

So with such diversity, what could we possibly have in common and how do we fellowship? Here's a snap shot from our year end get together to provide some color:

-FOOD: We enjoy eating! Our evening included a potluck smorgasbord as eclectic as ourselves: black bean sauce (jjajang) rice, boiled pork belly and hock, raw oysters, sautéed chicken wings, spicy bbq chicken breast, rigatoni pasta, vegetable tempura, baked yams, salad, chips guacamole, salsa...and more!

-INTENTION: We are intentional and purposeful when gathering, and we are intentional TO gather. The evening started off with writing down our specific goals for 2020 to help keep each other accountable as well as a commitment in the new year to memorizing and meditating on God's word together.

-HOMOGENEITY: We enjoyed healthy competition, teamwork and games like charades and yut. It was fun to experience all ages putting aside ourselves and becoming one with child like laughter. How lovely to see folks serving each other, understanding each other, seeking after heart of Christ.

Mokjang 6 is an eclectic, imperfect bunch. We share news of joy and celebrate life's wins, but we also share moments of weakness, struggle with sin, and deal with challenges at work and with fami-



ly. It is in our humanness and the acknowledgement of our shortcomings that we can all find in common the need for a gracious and loving Savior and the blessing of a community of believers to do our faith journey together.

Are you plugged into a Mokjang? If not, join one!

| Laura Park 성도 |

38명의 대식구로 이루어진 벨리채플 6목장은 그 숫자만큼이나 구성원들이 다양합니다. 연령도 20대초반부터 60대까지이고, 익숙한 언어도 한국어, 영어는 물론 스페인어와 일본어가 유창한 분들도 있습니다. 직업도 갖가지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색깔의 목원들이 어떻게 한 목장에서 교체하고 한 마음이 될 수 있을까요.

지난해 연말모임을 보시면 이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먼저 음식을 나눕니다. 팔락으

로 가져온 음식들은 짜장밥부터 삶은 돼지고기, 매운 바비큐 치킨, 생굴, 파스타, 야채 템푸라, 군고구마, 살사, 칩 등등... 참으로 다양한 메뉴를 함께 즐깁니다.

식사 후 모임의 목적과 의도에 충실한 순서를 갖습니다. 이날은 각자 새해의 구체적 삶의 목표를 적어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기로 다같이 결단했습니다.

다음은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윗놀이와 게임을 통해 함께 웃고, 즐기며 서로를 더 알아가며 팀워크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목장을 통해 믿음생활의 기쁨과 승리로 나누지만 연약함과 죄에 넘어졌던 실패와 삶의 곤고함도 같이 나눕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의 공동체의 축복이 필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편면합니다, 아직 목장에 조인하지 않았으면 꼭 참여하세요. 작정하시고 같이 해 보세요, 처음엔 불편하시더라도.



■ MP채플 7목장 친자매들의 모임을 연상케 하는 MP채플 7목장은 토렌스에 위치한 Vegas 식당에서 잔잔하면서도 화끈한 송년모임을 가졌다.



■ 벨리 브니엘 베들레헴국 매 주일 커피와 빵으로 섬겨온 브니엘 가족들은 새해에도 더 나은 서비스로 성도님들을 섬기기로 다짐한다.

■ 노회 은퇴목사 위로모임

감사와 존경의 마음으로 섬김의 기쁨

지난 연말을 맞아 우리교회가 소속된 미주합동총회 서부아메리카 노회 은퇴 목사님들의 노고에 감사하고 위로하기 위한 섬김의 자리가 12월 17일 열렸다.

40여분의 은퇴 목사 부부가 참석한 이날 최혁 담임목사님은 "목회를 하면 할수록 한평생 목회를 감당하신 은퇴 목사님들이 더욱 더 존경스럽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참석한 목사님들은 주안에교회와 최혁 목사님의 환대에 감사하며 교회에서 정성껏 마련한 오찬을 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또한 박민재 목사님은 양봉 하신 꿀을 한 단지씩 드렸고 최혁 목사님은 한분 한분께 손수 쓴 카드와 선물을 전했다.

식사 후 교회를 둘러보며 교회의 현황과 사역에 대한 설명을 듣고 축복기도로 이날 행사를 마무리 했다. | 임용자 기자 |



노회 은퇴목사님들을 초대해 대접하는 행사가 지난달 17일 교회에서 있었다.

〈다음은 이날 참석한 은퇴목사님이 교계신문에 기고한 감사의 글을 발췌한 내용입니다.〉

지난 12월 11일 필자가 소속해 있는 노회 서기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동일한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는 어느 교회가 노회원들을 점심식사 자리에 초대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초대 받은 노회원 가운데는 3시간을 운전을 해서 참석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생각지 못한 특별한 모임을 통하여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큰 위로와 기쁨의 선물을 크게 받고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모임에 참석한 회원은 부부 동반해 40여 명이나 되었습니다. 필자가 충격을 받은 것은 우리를 위하여 너무 큰 잔치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정도의 정성과 사랑

으로 우리를 초청하리라고 생각지 못했습니다. 음식은 어느 소문난 식당에서도 맛볼 수 없는 진귀한 것으로 다양하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최고의 사랑과 정성으로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식사하는 동안에는 식탁 앞에서 최고의 기량을 지니신 성악가와 악기 연주자들이 은혜로운 곡을 연속적으로 공연해 주시어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감동을 받게 하였습니다. 마치 왕의 식탁에 초대 받은 느낌이 이러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잠시 해 보았습니다.

더욱이 감동이 되었던 것은 우리를 초청한 교회를 담임하시는 C 목사님이 우리와 함께 식탁에 앉지 아니하시고 봉사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우님들과 함께 음식을 나르시

고 커피를 공급하시며 우리가 식사를 마치기까지 서서 수고하심을 보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감동은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종류의 선물 보따리를 정성으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 중 감동을 더한 것은 담임 목사님이 손 글씨로 예쁘게 써 내려간 감사의 인사 카드는 너무 멋있었습니다. 또 놀란 것은 카드 속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연말에 목사님의 가족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식사비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교회가 예산이 넉넉하기 때문에 잔치를 베풀 것 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희생과 섬김의 결단이 아니면 그런 아름다운 잔치를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의 삶, 나의 감사 MP채플 이정순 집사

제 아내와 첫 만남은 신입생 과대표를 뽑는 모임에 선배 참관인으로 참석한 어느 따뜻한 봄날이었습니다. 미색의 투피스를 입은 여학생을 보는 순간 그냥 빠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만난 여인과의 삶이 올해 50년을 넘었습니다. 주님께서 첫째, 둘째 아들을 연년생으로 주시고 두해 지나 또 아들 하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는 셋+1의 철없는 사내들을 양육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강한 엄마+아내이었지요.

몸이 아프거나 피치못할 때를 제외하고는 새벽 예배를 그리 열심히 다니며 사내 넷을 위하



여 얼마나 기도했기에 하나님께서 철없는 사내들을 빠르게 성장토록 하셨을까요? 아내에게 그토록 강인한 힘을 주시는 하나님은 해로 투정대며 간신히 아내 웃고리 잡고 다니던 제가 주님께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었습니다.

50년 동안 서로 사랑하며 아낄 수 있게 저희 부부를 붙들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해에도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를 준비하고 성도님들을 섬기겠습니다. 항상 같이 하여 주시는 주님 사랑합니다.

■ 미니 인터뷰/ 박경숙 권사

"목사님 말씀 듣던 중 치유 경험"

"지난 12월 15일 주일 예배 설교시간에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아픈 허리를 만져주셔서 오랫동안 아프고 낫지 않아 서울에 가서 치료를 받으려고 준비중에, 주안예교회에서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였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다시 주안예교회를 찾은 박경숙 권사님의 방문 목적은 큰언니인 박경원 권사를 만나는 것이었지만, 최혁 목사님의 말씀과 새벽기도가 너무 은혜롭고 주님과 더 가까워질 경험을 사모했기 때문이었다고 간증했다.

현재 남아프리카 요하네스버그에 살며 1985년에 대우그룹의 지사로 발령받아 먼 아프리카로 떠날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알지 못했었다. 올

해로 신학대학을 끝마치는 남편, 그리고 세 딸들과 함께 믿음의 동역자로 함께 같은 길을 가고 있다. 부부는 매주 일 새벽마다 집 없는 청소년들과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다.

흑인들은 타고난 목소리가 아름다워 베이스에 화음으로 찬양을

하는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만난다는 사실이다.

세 딸들 가운데 두 딸이 소아과 의사로 버려진 아이들을 건강하게 길러 입양될 때까지 돌보는 베이비 셀터를 운영하며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고 한다.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이 전해지는 것 같았다.

| 임용자 기자 |

■ Movie Review/
'A Charlie Brown Christma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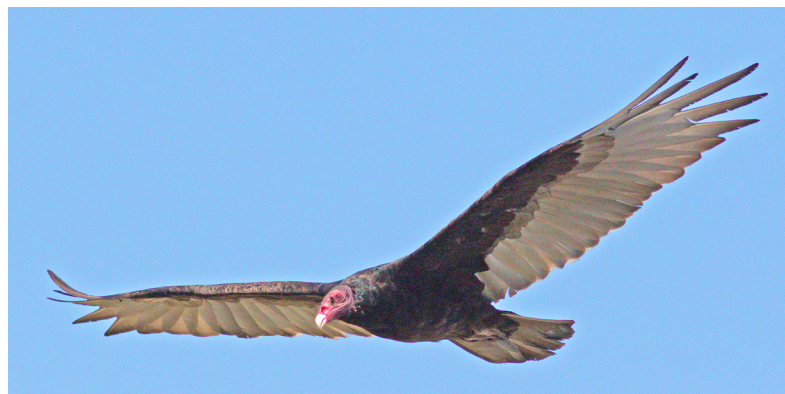
I never understand why it is an American tradition to watch this movie until I watch it for the first time this year.

Usually Christmas shows have a "feel-good" theme that lacks the true meaning of this special holiday.

But in this movie, Charlie Brown is depressed at the commercialism he sees around him. He tries to find a deeper meaning to Christmas. What surprises me the most is that it mentions the bible and Jesus, which is a taboo in any modern movie. It may be "boring" or childish at times, but give it a chance. You may relate to Charlie Brown's experience much more than you think, and that may help you make a meaningful new year resolution.



| Simon Cho 기자 |



■ 포토 에세이

새해, 날개를 활짝 펴고

세상에 빠져살던 2019년의 삶은 과거의 삶이 되었다. 2020년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는 이 독수리처럼 하나님을 만나러 진리에 눈을 부릅뜨고 마음의 날개를 활짝 펴서 하나님을 향해 훨훨 날아가야 한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이 땅에 버려두고 우리는 하늘로 날아가야 한다. 우왕좌왕하던 시절들은 훌훌 털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참 진리며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실천으로 옮기는 한 해가 되기를...

| 최호기 기자 |

예배시간 및 교회 위치 안내

주일
예배

밸리채플/ 1부 오전 8:00, 2부 10:00
MP채플/ 1부 오전 10:00, 2부 오후 1:00

주중
예배

수요일예배/ 저녁 7:45 MP채플
금요일예배/ 저녁 7:30 밸리채플

새벽
예배

밸리채플/ 새벽 5:30(월-금), 6:00(토)
MP채플/ 새벽 5:30(월-금), 6:00(토)

교육부 예배시간(교회학교)

밸리채플/ 주일 오전 10:00, 수 저녁 7:45
MP채플/ 주일 오전 11:30, 금 저녁 7:45

ICY중고등부&영어청년부

밸리채플/ 주일 오후 1:30, MP채플/ 주일 오전 10:00

Coram Deo(한어청년부)

밸리채플/ 주일 오전 10:00, MP채플/ 주일 오후 1:00

밸리채플 Valley Chapel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MP채플 임시예배처소 MP Chapel

333 S. Garfield Ave. Monterey Park, CA 91754

"주안에" 2020년
2월호 원고 모집

'주안에'는 교우 모두가 참여하여 만드는 우리교회 뉴스레터입니다. 목장, 사역팀 소식을 비롯, 간증과 일상의 소중한 이야기까지 함께 나누고 싶은 글을 많이 보내주세요. icccnews123@gmail.com

발행처: 주안예교회 문서사역국

문서사역국 명단: 오희경(국장), 나형철, 민유선, 박경숙, 양하민, 이상은, 이예스터, 임용자, 임종구, 조 사이먼, 조용대(기자)

양영, 최호기(사진) 편집디자인: 김윤영

2019년부터는 주안예신문이 매달 초에 미리 발행됨을 알려드립니다.